

# ‘DDD 에너지 전환’ 미래를 묻다

〈분산·직류·디지털 AI〉

17~18일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노벨상 수상자 콘스탄틴 기조 강연 AI·RE100 등 심도 있는 세션 진행

나주시가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연다.

나주시는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준비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이하 포럼)’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DDD 에너지 전환(분산, 직류, 디지털 AI)’으로 정부의 에너지 및 AI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과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7일 개막식에서는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그래핀 연구 권위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차세대 신소재의 AI 기반 설계와 에너지 산업 혁신을 전망한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세션 1 ‘AI for Energy’에서는 신정규 래블업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고 김성철 한전KDN 원장, 이효섭 인코어테크놀로지스 부사장, 강명구 I-DEA 사무총장, 손경중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마기평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수석 등이 참여해 전력 거래 최적화, 차세대 전력망 운영, 글로벌 규제 대응,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8일 오전에는 세션 2 ‘Business & Investment’가 열린다.

최종웅 인코어테크놀로지스 대표와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이 기업과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브라이언 구, 아민 바드르 엘 단, 제프 워, 스티브 웨슬리 등 글로벌 투자 리더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실리콘밸리 최신 동향과 한미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같은 날 오후 세션 3 ‘Energy for AI’가 이어진다.

토마스 헬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통

해 COP30을 앞둔 탄소관리 전략을 발표하고 김용학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장, 진우삼 한국 RE100위원회 위원장,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김유신 전남에너지산업협회장, 크리스토퍼 데스마라이스 슈나이더일렉트릭 디렉터 등이 참여해 전력 시스템, 에너지 및 AI 융합, RE100 산업단지, 공동체 에너지 전환을 논의한다.

포럼은 학계와 산업계를 넘어 시민과도 소통한다. 17일 오후에는 구독자 270만명을 보유한 인기 과학 유튜브 채널 ‘과학을 보다’가 시민특강을 갖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베트남 다낭시와 전남에너지산업협회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교류와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와 AI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직류, 분산, 디지털 AI를 중심으로 나주가 만들어가는 에너지의 미래를 조망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 가마골생태공원.

## 담양 가마골생태공원, 자유롭게 즐긴다

군, 10월부터 무료 개방

담양군이 10월 1일부터 가마골생태공원을 무료로 개방해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연 속에서 쉼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담양군은 이번 무료 개방을 통해 가마골생태공원을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 생태공간으로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1989년 개장한 가마골생태공원은 담양군 용면 용연리 용추산(해발 523m)을 중심으로 사방 4km에 걸쳐 있다. 영산강의 발원지인 용소와 약 2km 길이의 천연 계곡을 품고 있어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명소로 울창한 숲과 풍부한 계곡 물줄기를 자랑한다.

주요 시설로는 시원교(출렁다리), 시원정, 3개 등산로와 2개 자연탐방로가 있으며, 인근 전통 산골 음식점에서는 닭요리와 메기탕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별미를 즐길 수 있다.

군은 무료 개방과 함께 생태공원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설물 훼손, 음식물 반입과 취사, 야영, 동식물 포획이나 수목 굴취, 흡연 및 쓰레기 투기 등 생태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가마골생태공원은 담양의 자연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무료 개방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더 가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양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n@

## 함평군을 두 번째 추정

485억 증액...총 6229억

민생회복·경제활력 집중

함평군이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예산 6229억원을 편성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두 번째 추경안으로 485억원의 증액, 총예산안은 6229억원 규모다.

군은 2023년 처음으로 총예산 616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는 6052억원이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63원(484억원 ↑)과 특별회계 266억원(1억원 ↑) 등 첫 번째 추경보다 485억원(8.43%)이 늘었다.

주요 편성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59억원)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0억원) ▲고향올래사업(20억원) ▲함평사랑상품권(16억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15억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1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함평읍·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44억원) ▲손볼 농어촌 생활우수개발사업(10억원) ▲정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10억원) ▲조사로 생선 및 이용 장려금(9억원) ▲함평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5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도 포함됐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추경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군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성군, 구급대원 농기계 사고 대응 안전교육

40여명 위험 요소·대처 등 숙지

장성군이 최근 농기계대사업소 본소에서 장성소방서 구급대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 대응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운기, 관리기, 승용제초기 등 농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임대 농기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진〉

구급대원들은 ▲농기계 명칭 ▲기본 조작법 ▲농작업 내용 ▲농기계 사고 및 위험 요소 등을 숙지했다.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작동 중단법과 대처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농기계 사고는 영농철인 3~10월 사이 주로 발생하며, 기계 전복(50%), 끼임(42%) 사고가 대다수다.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치사율이 8.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철저한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

박인정 장성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성소방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농번기 농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군민이 공약 점점...강진 ‘주민배심원 회의’ 출범

강진군의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가 출범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최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협조 아래 30여 명의 주민배심원이 참여해 공약 이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군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강진군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약 이행에 대한 군민 평가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민배심원 회의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공약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속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강진군 주민배심원들이 1차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차 회의는 26일, 최종 회의는 10월 17일 개최한다.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제도’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배심원들은 5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분임 토의를 진행했으며 자기소개 및 참여 동기를 공유하고 주민배심원의 역할과 향후 일정을 안내받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인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